



2001 연세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발신: 제12대 총여학생회

수신: 토론회 참가자

드디어 10월, 이제는 12대 총여학생회의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때가 생각한다. 선거에 시작하기 전에 결정된 총여학생회 집행부는 후보와 부후보를 빼면 한명 밖에 없었다. 그 한명을 제외한 현재의 다른 집행부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선거가 끝난 후 집행부 제안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 여성운동에 약간의 관심만 가졌던 사람도 있고 삼간 여성모임에 몸담았던 사람도 있고 구성원들은 정말 성격이 다양했다. 그리고 지난 10여개월 동안은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총여학생회 1년 사업을 이끌기도 정해진 사업에 끌려가기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학생회라는 성격의 특수성상 많은 시간 바빴고 정신없었다. L.T에 가거나 집행부 회의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했었지만 지금처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평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0. 2000년도 학내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여성운동 내용의 다양화 -성폭력 학칙제정

성매매/기지촌

여성학 수업

중·저학대성. I will room.

여성모임에 대한 평가

1. 나/모임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나/모임은 왜 운동을 하는지

아시다시피 총여학생회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도 1년에 한번 있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학생회라는 점이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늘 '6000여학우'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화장실 신문이나 홈페이지 제작이 학내구성원 전체와의 소통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고 기활(기지촌 현장활동)등 총여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행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선전을 해야한다. 거꾸로 총여학생회이기 때문에 교육투쟁이나 중운위회의 처럼 '해야만 하는'일들도 생기곤 한다.

여성운동에서 총여학생회를 어떤 관점에서 볼지는 오늘의 중요한 토론거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총여학생회가 가진 메리트가 큰 이유이다. 총여학생회는 돈, 정보력, 공간, 중운위에서의 발언, 명의의 영향력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회비와 기타 재정은 일년활동을 하기에 족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모든 사업제안이 총여학생회로 들어오고 있다. 중운위에서 발언 할 수 있는데 이는 올해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말 학생회를 해본 사람은 이게 굉장한 거구나라는 걸 알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물적 기반과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이 주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총여학생회가 많은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로 인해서 학내 여성운동이 총여학생회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총여학생회가 많은 사업을 함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총여학생회에 이끌려가는 경우도 생긴다.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의식 그리고 관심의 차이가 묻혀진 채 총여학생회가 '해야하는'사업에 모두가 끌려가는

일이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총여학생회의 정체성은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고민이 각자의 몫이 된다.

2. 모임이 담고 있는 기반/대중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와 연대하고자 하는가

총여학생회가 담고 있는 기반은 물론 연세대학교의 여학생들이다. 그러나 단순히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들은 대표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학생회 선거와는 전혀 다른 맥락위에서 있다. 누년에 걸쳐서 선거 때마다 '여성들간의 차이'를 이야기하여 왔다. 총여학생회가 한번의 선거로 일년간의 활동이 보장되는 6000여학우의 대표체가 아니며 총여학생회는 논쟁과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실질적으로 활동에 이러한 관점을 녹여내지는 못했다. 사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찾기가 어렵다.

성폭력학칙제정 사업을 할 때 총여학생회에서는 학내에 성폭력학칙제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학회별로 세미나를 제안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허공에 떠 있는 6000여학우라는 식의 대상이 아닌 논의와 토론이 가능한 학회가 학칙제정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총여학생회가 어떤 기반을 담고 있고 누구와 연대할 것인지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3.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관계속에서 모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총여학생회가 판단하기에 지난 1년간 학내 여성모임은 과편화되었다. 과거와 달리 여성모임간의 연대 사업은 물론 소통조차도 되지 않았다. 두입술, 페미니리는 각자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모반의 경우 새내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의 여성제처럼 학내 여성모임간에 연대할 자리가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들과 어떤 연대를 할 것인지 왜 연대를 하려고 하는지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모임과 어떤 관계를 맺건 간에 당연히 동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말은 대단히 허울좋은 말일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총여학생회로 공간/제정/발언력/정보가 집중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를 제외하고 자치단체끼리라도 단순히 '여성주의'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함께 하기는 힘들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당위에 의해 만드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토론회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솔직하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립되어 활동할 때 힘든 면들을 깨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당위적인 연대가 얼마나 약한 고리인지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4.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앞으로 총여학생회 다음 총여학생회에 이월을 해야 할 것이고, 이제 임기가 끝나는 대로 12대 총여학생회는 끝을 맺는다. 지난 활동을 통해서 각자가 얻은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개인이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얘기해볼 것이다.

2001년, 연세에서 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발신: beyond 은

수신: 2001년 연세에서 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참가자 여러분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비온드 구성원간의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 한 비온디안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0. 2000년도 학내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2000년은 연세에서 학내여성운동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준 한 해였던 것 같다. 12대 총여학생회가 성실히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비록 몇몇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 또한 올해는 전반적으로 학내 여성운동에서 다루어 왔던 주제 및 화제가 한층 다양해진 한 해이기도 했다. 이전부터 다루어지던 성폭력과 같은 주제 역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동시에 성매매/기지촌 문제, 여성학수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목소리를 내었던 한 해였다.

2000년 학내 여성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2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대체로 총여학생회는 학생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학우들과의 소통(물론 이 문제는 학내 여성운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세학생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이나 학내 여성운동의 문제의식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일(이를테면 지난 선거 때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여학우들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여성취업문제 등에서는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총여학생회의 존재가 학내여성운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서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동쪽과 비온드, 움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공계의 경우 의대여성모임 위카와 같은 새로운 여성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이과대 여학생회가 여성위원회로 전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공계 여성단위들 간의 연대가 모색되기도 하였다. 특히 올 한해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임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두입술, 페미니리, 아이윌 등은 학내여성자치단체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비온드는 앞에서 말한대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기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자체적인 사업이나 내부적인 모임의 정비, 일상적인 활동이 거의 전무한 가운데 구성원간의 소통 역시 부재했다. 이러한 가운데 비온드는 총여학생회와 함께 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1. 나/모임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나/모임은 왜 운동을 하는지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 발제문은 개인적인 입장을 담을 글이므로 모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온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나는 내가 잘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알게모르게 관계속에 놓여있는 여성들도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좀더 생각해봐야겠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도 없고,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에게서나 반말을 듣는 일도 없고, 과방에서 나의 외모를 폄평당하는 일도 없고, 불편한 시선의 좁은 틀 속에 자

신을 가두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점점 거창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학우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읽어내고 여학우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모임이 닫고 있는 기반/대중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와 연대하고자 하는가

비온드의 기반은 알다시피 사회대라는 특정 단과대이다. 우선 사회대는 여학생 비율이 높은 단과대 중 하나이다.(1999학년도 신입생의 약40%가 여학생, 2000학년도에는 여학생 비율이 더 늘어났다고 함)사회대는 문대와 함께 그래도 비교적 표면적인 평등의식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우리가 여학우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공대같은 공간과는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대 학우들은 대개 자신들을 보통의 상식을 갖춘 교양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에 표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의 실천에는 인식하다는 점에서 다른 공간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사회대 여학우들의 경우 대체로 양성평등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한 편이며 노골적인 성차별적 언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이다. 그러나 실제 일상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들에 관해서는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당위적으로 동의하지만 페미니스트가 되기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대 여학우들로부터 여성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입장을 존중해야 하며 편협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대체적인 사회대 학우들의 분위기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동원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적어도 토론과 설득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사회대의 모든 여학우들과의 연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당장 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선 비온드의 입장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호소하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는 비온드가(굳이 비온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 먼저 사회대 여학우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걸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문제부터 일상적으로 소통해나갈 때 연대의 가능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3.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관계 속에서 모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질문이 원하는 답은 아닐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서 지냈던 것 같다. 소속은 분명히 비온드였지만 가끔 스스로도 학내 여성운동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헷갈릴 정도로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다. 혹자들은 그래서 나를 총여 집행부로 착각하기도 했다.

12대 총여학생회가 활동을 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각 단위의 인력과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 해도 다른 학교처럼 모든 여성주의자들이 총여학생회에만 집중되는 일은 없겠지만 자치단체 특히 단과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인 연대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영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위의 문제와는 별개로 학내 여성주의자들간의 연대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다. 단위와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고 특정한 영역을 다루는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된 탓도 있겠지만 각자 연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학내 여성주의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런 추세로 나가다보면 학내 여성주의자들끼리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내 여성단위들간의 연대를 위한 연대체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연대체가 모든 단위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단일한 연대체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상 적극적인 연대는 하지 않더

라도 학내의 모든 여성단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통로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소통을 하는 바탕 위에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총여학생회가 학내 여성단위의 상위기관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총여학생회에 이런 역할을 요구해서도 총여가 이런 위치를 점하려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이런 연대 혹은 소통을 위한 기구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4.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에서 답한 바와 같이 학내 여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싶다.(좀 많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또 비온드가 계속 존재할 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대를 기반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학기 들면서 사회대 여학우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획자보를 내려고 생각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참으로 일도 많고 힘든 적도 많은 한해였다. 총여학생회라는 든든한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학내의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종종 내가 여성주의자인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비온드의 상황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나를 괴롭혔다. 개인적으로 올 한해동안 여성주의자로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을 함께 하면서 실무능력이 늘어난 것과 함께 학내 상황을 읽어내는 눈도 조금은 자랐다고 여겨진다. 접해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지 헛갈리기도 했지만 모든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일보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연세 여성주의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즐겁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과대 여성운동에 대한 잔인한 보고서

BY HERA

0. 그들도 나도 모르고 있다. 아니, 실은 모른 척 하고 있다.

우선 이학. 공학, 의학 계열이라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연계열이라는 다소 두리뭉실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 그러나 이 단어는 자연 계열 여학생 및 연구직 여성들이 고등학교 시절 "자연계"여학생이 되어야만 했던 현실과도 맞물려 있으므로 과히 엉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그녀들은 (실은 우리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과 여학생"이 되어야 했다. 이과 여학생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편견은 우선 그녀들은(이것은 편견이기에 '우리들'로 편입되지 않는다.) 수학을 잘한다. 그리고 영어와 국어를 못하지만 싫어한다고 말한다. 이과, 문과를 정하기 전부터 그녀들은 다소 중성적인(혹은 비 여성적이라고 교육받아온) 외모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남성들과 논쟁하거나 싸움질하는 용감한 모습을 지니기 일쑤고 어릴 적부터 쿨리 부인을 사모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과를 선택한 그녀들은 이과에 진학하기 위해 더욱 중성적으로 변모해야만 하고 여성스러운 이과 여학생이란 어떤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친 과학이라는 학문의 바다에서 당당히 남성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대학의 문을 열어 쫓는다. 저학년 시기에는 자연계열 여학생들은 여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안팎에서 내몰리고 고학년 시기에는 남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결코 능가해서는 안된다.) 공부도 잘하면서 고학년다운 여성스러움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연구직에 나서기보다는 후진 양성에 힘쓰기 위해, 그리고 비록 한 때 자연계열 여학생이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시집도 가기에 적당한 직업인 교직을 선택해야 하고 그나마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물리나 화학보다는 세심한 성격에 걸맞고 암기력 위주의 학문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생물과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것으로써 그녀의 인생은 결정되다시피 한다. (비록 내가 이과대 여학생들의 현실을 배경으로 쓰고 있지만 이것은 공대나 의대 여학생들에게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으므로 적절히 상상하길 바란다.) 그녀들도 알고 있다. 우리들도 알고 있고 누구나 이러한 편견 덩어리의 현실이 여성에게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반여성적인 것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른 척 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와 한 공간에 있는 누군가의 현실이며 고민이다. 나는 나만 열심히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큰 문제도 아닐뿐더러 나의 능력과 캐리어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순진, 아니 무지몽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모른 척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운동을 말한다는 것, 함께 하기를 외친다는 것, 하다 못해 주어진 현실에 반항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쉽고 어렵고의 문제를 넘어 그녀들의 머리 속과 가슴속을 후벼파야 하며 잘 못 후벼파는 아예 골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롭기 그지없다. 이러한 방법적 논의 외에도 '과학과 여성'이라는 범주의 고민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에 나는 여러분에게 ".....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로 가득 차 있고 ".....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든 나의 발제를 듣기를 강요한다.

당신은 자연계열 학문영역 속에 '여성'이 산다는 사실을 믿는가.

1.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실은 별로 한 게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한 게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대로'라는 의미는 '적절하게'라는 말과 바꾸어도 좋다. '여성'을 말하는 여성운동은 거의 전무했다. 기존의 운동 세력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성분과들은 자연계열 여성들의 현실을 간과하고 자연계열 여성들이 전체 여성들을 이끌고 계도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여학생들의 고민을 담아내고자 했던 움직임들은 단순한 성평등적인 접근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이제는 지쳐버렸다. 지리멸렬하고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억울하지 않

느냐."는 식의 말에 지쳤고 무언가 짊고 넘어가야 할 지점을 놓친 것 같아 찝찝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은 나 자신이 활동해왔던 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98년 제 9대 이과대 여학생회가 있었으나 2학기부터는 그 활동 정도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많은 이과대 여학생들은 이과대 여학생회를 불신하고 그 존재의미조차 지워버릴 정도가 되었다. 98년 선거시기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99년 4월에 선거를 통해 제 10대 여학생회가 세워졌으나 역시 이과대 안에서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 11대 여학생회는 선거를 치르지 못한지 1년이 되었으며 이과대 여성위원회로 전화할 것을 지난 3월 결의하였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이과대 여학생회가 기존의 여학생회에 대한 경험 부족과 이과대 내외에서의 위상이 불투명하였다는 점, 명확한 이슈를 설정하고 일정을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실패의 지점이 명확해진 것과 유사하게 자치단체로서의 여위의 목적과 대상을 설정하는데 익숙하지 못했고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적었기에 지금 일년이 되어오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 99년 겨울부터 자연과학부 6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메밀잠자리'라는 모임이 생겨났으나 초기의 의욕과는 달리 참여하는 여학생들의 생각보다는 고학번 중심의 강행된 일정이 무리하게 이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 2학기에는 아직 첫모임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바라볼 때 이 3가지 형태의 조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우선 3가지 형태의 조직 모두 경험자가 거의 없었다. 다음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목적과 의의, 영역과 대상의 설정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 논의과정이 부족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기어가면서 걸어야한다고 말하고 날아가는 것을 동경하는 꼴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2.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과대에서 여성운동을 말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일일지도 모른다. 모두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른척하는 현실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한다는 것조차 큰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을 꾀하고자 한다.

- 1) 공통된 경험과 현실에 대한 일상적 접근과 재반성 - 제 2과학관 문제, 화장실 신문, 여휴 날적이
- 2) 여학생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접근 - 자치단체로서의 활동,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 3) 이학, 공학, 의학 계열 여성의 전반적 문제의식과 공감대 형성 - 과학과 여성에 대한 논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조정 및 고찰을 통한 자연 계열 여성 운동의 위상을 확고히 함.

3. 남아있는 문제.

학생회와 자치단체, 소모임 이 조직의 형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과대에서 '여성'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한계지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빠질 수 없다.

목표가 거창하면 실망도 크다지만 높이 겨누면 높이 맞출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얻으며 이과대 그리고 자연 계열 여성운동에 힘을 싣고자 한다.

2001 연세에서 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의 입장

1. 2000년도 모반의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 지난 학기 다른 학내의 여성자치단체들에 비해 많은 수의 새내기들이 들어왔지만, 그에 반해 모반 내부의 자체적인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많은 성원들이 연성뿌연이나 백서모임과 같은, 총여학생회와 함께 하는 사업에 동참했지만, 신입생 수련회 기간 이후로 모반이 문과대학 내에서 벌인 사업은 없었다. 이는 한 성원에게로 일이 과부하 되었고 대다수 성원들의 문과 대학의 현실에 대한 파악이 지난 학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모반의 기반과 활동

→ 모반은 문과대학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문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운동의 방식과 그 방향설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문과대학은 타 단과 대학에 비해 여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이는 모반의 활동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내재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여성의 수가 남성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주며, 남녀평등이나 여성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차원까지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문과대학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나름의 보편적 이해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으로서 갖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공동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일면 문과 대학의 현실이 여성운동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다수의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만, 동시에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오히려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며, 여성들 내부에서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여성들 내부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욕구들의 표출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여성들 간의 소통의 가능성을 보다 넓힐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특히 문과대학의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성주의에 대한 부분적 이해와, 남성들이 지닌 논리적 언설이다. 설익은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는 페미니즘에 대한 토론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되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령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여성의 입장을 배제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과의 특성상, 이러한 남성들은 나름의 논리적 체계들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논리체계, 여태까지 훈련되어온 논리적 언설들에 대한 대항과 전복의 문제 또한 고민해야할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3. 총여학생회와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문과대학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자치단체인 모반에서는 연세대학 전체를 상대로 한 사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령 여성학 수업의 채택의 문제나, 학내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문제의 경우에는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측과 협상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총여가 분명 대표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언제나 학내 모든 여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들이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 모반의 경우에는, 문과대학 여학우들의 상황을 총여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소통의 경우 역시, 학내의 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거시적 차원의 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서로간의 소통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연에 얽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함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고민

→ 모반은 작년 문과대학 선거에 개입하여 현재 문과대학 학생회로 활동하고 있는 자주대학 선분이 제시했던 문과대학의 자치규약 제정과 여학생 휴게실의 관리 문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문과대학 학생회는 자치규약 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과대학 지하의 공간 공사는 이번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야 마무리되어 아직까지 공간 배정조차 제대로 끝맺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생회가 선출되기 전에, 현재의 문과대학 학생회에 공약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 우선적인 고민 사항이 되겠다.